

## 직업교육

### I. 직업교육 정책

#### □ 교육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sup>1)</sup>(2014.2.13.)

- 교육부의 2014년 정책 비전은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라고 밝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키워드로 ‘꿈·끼’, ‘창조’, ‘도전’, ‘희망’을 제시함.
  - 4대 핵심 전략: ①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② 창조적 인재를 기르는 질 높은 대학, ③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능력중심의 사회, ④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열린 기회의 나라
- 실천과제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과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자유학기제를 전체 중학교의 20%로 확대 운영
    -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 일반학과와 고등학교까지 꿈·끼 교육활동 연계
    - 고3(수능)·중3 기말고사 이후 및 학년말에 ‘꿈·끼 탐색기간’을 운영
  -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창의·융복합형 인재 양성
- 실천과제 2. 대학의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체제 혁신을 통한 창조인재 양성
  - 2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14년~’16년 LINC 사업)을 통해 산업계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산학협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계획
    - 대학이 보유한 기술·아이디어의 조기 사업화를 지원(‘14년 LINC 사업 ‘기술 혁신형’대학 5개교 내외 기술사업화 총 50억 원 내외로 집중 지원)
  - 창업휴학제·창업학점교류제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의 구축으로 창업교육을 내실화하고, 창업강좌 정착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학생 창업 지원

1) 진로·직업교육 관련 실천과제 중심으로 작성하였음.

방안 도입

- 창업경진대회 개최,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모형(ESG)에 학생창업지원 포함.
  - 캡스톤 디자인 작품을 경매식으로 거래하는 시장(CAM: Capstone Design Auction Market) 조성
  -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14년 2,031억 원)을 시행
- 실천과제 3. 현장중심 직업교육체제 및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 구축
-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과 NCS 학습 모듈 개발을 확대하고 직업교육 과정을 NCS 중심으로 개편
  - 산업계·범부처간 협업으로 청소년의 흥미가 높은 10대 분야를 선정하여 국가역량체계(이하 NQF) 구축 시범 사업을 추진
  - 산업계 주도로 학력에 상응하는 직무능력 인정기준
  - 고교 직업교육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여 유럽의 직업교육모델의 장점을 보완한 마이스터고를 활성화하고, 산업인력 수요부처가 지원하는 부처연계형 특성화고를 육성하는 등 고졸 취업 확대를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관광), 국토교통부(공간정보) 및 관세청(FTA) 지원 취업 맞춤형 운영 추진
  - 재직자 특별전형, 계약학과, 사내대학 등 고졸취업자의 후진학 성장경로를 다양화하고, 고용부·중기청 등과 협업하여 기업의 후진학 장려풍토를 조성
  - 전문대학을 고등 직업교육기관으로 집중 육성
  - 특성화 전문대학(14년 2,696억 원)을 선정해 산업분야가 요구하는 핵심 전문직업인 양성 지원
  -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의 최신기술 학습 수요 등에 대응하는 평생직업교육 대학을 운영,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립
  - 생애단계별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서비스망’과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생활 밀착형 평생학습을 지원

- 양질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한국형 온라인 대중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할 계획
- 실천과제 4. 고른 교육기회 보장과 사교육·입시 불안 해소로 행복교육 실현
  - 농산어촌에 ICT 콘텐츠 확충('13년 300교→'14년 2,000교)과 1군 1우수중학교 육성('13년 20교→'14년 50교)을 통해 학생들의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하여 숙려기간 지원을 의무화
  - 다문화학생을 위한 예비학교 확대와 대학생 멘토링을 통한 재능계발, 탈북 학생에 대한 대안교육 및 진로직업교육을 강화
  - 특수학교 신·증설과 교사증원 등을 통해 장애학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습부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국가 영재교육프로그램 기준' 개발을 통한 영재교육의 질 제고 추진
  - 고입·대입 사전 예고기간을 확대 계획
    - 특목고·자사고 등의 고입전형 사전예고기간 확대(1년→2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2년 6개월전(중전 1년 6개월 전), 대학별 전형계획은 1년 10개월 전(중전 1년 3개월 전) 발표하고, 변경 제한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14년 610억 원)을 추진하고, 학교가 대입정보 제공과 진학상담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논술전형을 축소하고 학생부 전형에서 공인어학성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는 경우 0점 처리하는 등 외부스펙반영을 제한해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입시를 준비
  - 한-월드뱅크 공동연구·세미나('14년 11월)를 추진하여 창의교육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 **교육부·고용노동부, 국가역량체계(NQF) 구축을 위해 2014년부터 시범 사업 추진(2014.1.22.)**

- 올해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NQF 구축·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14년~'15년)하고, 이를 토대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통합적인 NQF를 구축해 나갈 계획
- 시범사업으로 산업계(노사단체 등)와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자동차 정비·관리, 미용, 소프트웨어 등)를 선정
  - 해당 분야의 직업교육·훈련, 자격제도, 평생학습제도 등을 산업현장의 일 중심으로 개편
  - NCS를 기반으로 한 교육·훈련 이수 및 자격증 취득 결과가 노동시장의 채용·승진·보상과 연계되어 직무능력평가제가 정착·확산되는 성공모델을 도출할 계획
  - 산업계 주도로 해당분야에서 직업교육·훈련, 자격제도, 평생학습 제도, 현장 경력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분야의 국가역량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
- 'NQF 구축 추진단' 구성·운영
  - 교육부·고용노동부 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은 물론, 시범사업 운영 분야의 교육·훈련기관과 산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협의체 등으로 구성될 예정
  - NQF 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NQF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직무능력평가제가 정착·확산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역할 담당

□ **교육부, 자유학기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선도교육 지원청 선정 및 운영**  
(2014.2.21.)

- 교육부는 2014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희망학교의 확대와 운영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1개 선도교육청(제주)과 10개 선도교육지원청을 선정하였음.
  -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는 2014년도 전체 중학교의 20%(약 600개교)에서 2015년 전체 중학교의 50%(약 1,500개교)로 확대될 예정
  - 선도교육지원청: 성동(서울), 평택(경기), 강화(인천), 달성(대구), 금산(충남), 괴산중평(충북), 태백(강원), 순천(전남), 문경(경북), 통영(경남)
- 선도교육지원청은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유학기제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향후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우수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
  - 선도교육지원청에는 규모(소속 희망학교 수 등)와 지역사회 여건에 따라, 연간 4,000~8,000만 원이 향후 2년간('14년~'15년) 지원

□ **교육부·네이버, '소프트웨어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포괄적 업무 협약' 체결**  
(2014.1.24.)

- 양 기관은 초등학생 대상 방학캠프 운영, 초·중·고 방과후학교 개설, 교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정보교육 효과 제고 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교육콘텐츠 보급 등의 업무 협력에 합의
  - 초등학생은 스토리텔링 중심의 프로그래밍 교육
  - 중·고등학생은 물체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래밍 교육과 간편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교육을 수준별로 받게 됨.
  -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의 수업교재와 자료 등을 안내
-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네이버의 진로·직업체험 교실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기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 **교육부 · 한국공항공사 · 한국과학창의재단, ‘생생, 공항 진로체험’ 교육기부 협약 체결(2014.2.21.)**

-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며,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중학생들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
- 한국공항공사의 ‘생생, 공항 진로체험 프로그램(하늘 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항공기 항행 절차 및 비행원리 등을 교육하고, 관제탑, 레이더, 계기착륙시설 등 공항 주요 시설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임.
- 2013년부터 시범운영 하였으며, 자유학기제 도입과 관련하여 2014년부터 격주 운영으로 확대함.
- 또한, 2011년부터 보안검색, 항공기 발권 및 공항소방대 등 공항 내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

□ **교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부모용 진로진학지도 프로그램 배포 · 운영 (2014.2.27.)**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자녀교육과 역량강화지원을 위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학부모교육 Best 6!)을 2월말부터 배포·운영
- 진로진학프로그램은 디지털 콘텐츠(e-learning, m-learning), 워크북, PPT의 형태로 개발되었으며,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진로를 탐색해보고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미래사회의 전망, 발달 단계별 로드맵 등의 내용으로 구성(7차시)
- 과정에 대한 개념 제시 뿐만 아니라 자녀 발달 단계별(미취학·초등(저), 초등(고), 중, 고)로 나누어져 전문가 코칭, 사례 등을 풍부하게 담고 있음.

표 1. 부모와 함께 하는 진로진학지도 내용

차시	주제	세부내용
1	미래 사회의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li> <li>• 미래교육 트렌드</li> </ul>
2	자유학기제와 진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학기제 도입 후 교육현장의 달라진 모습</li> <li>• 자유학기제에 대비한 교육현장의 대응방향</li> </ul>
3	진로심리검사 활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적합성 탐색 및 진로심리검사 실제</li> <li>• 진로적성검사 결과 및 자료 분석과 상담</li> </ul>
4	진로에 스토리를 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활동보고서 및 포트폴리오 제작의 실제</li> <li>• 개인별 활동보고서 준비 방법</li> </ul>
5	진로진학지도(초)-'꿈 가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진로지도의 단계별 로드맵</li> <li>• 자기 이해와 진로 인식</li> <li>• 진로정보 탐색 방법</li> </ul>
6	진로진학지도(중)-'진로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진로지도의 단계별 로드맵</li> <li>• 진로캠프 구성 요소</li> <li>• 직업체험의 실제</li> </ul>
7	진로진학지도(고)-'진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진로지도의 단계별 로드맵</li> <li>• 생애 목표 설정과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li> <li>• 진로설계 모형</li> </ul>

□ 교육부, 「2014 미래의 직업세계(학과편)」 편찬·보급(2014.1.7.)

-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적성과 흥미에 맞는 학과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정보서 「2014 미래의 직업세계(학과편)」를 편찬하여 보급
  - 종이책자뿐만 아니라 전자책(e-book) 서비스를 동시에 추진
- '미래의 전공 트렌드', '학과별 소개와 전망', '학과 인터뷰'로 구성
  - 학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향후 전망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제어 검색, 단어 검색이 가능하여 관심학과나 분야를 쉽게 찾아서 참고할 수 있음.

□ 교육부, 전문대학 육성사업 시행계획 발표(2014.2.19.)

-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5년 동안('14년 ~'18년) 총 1조 5천억 원 이상을 전문대학 육성에 중점 투자

〈특성화 전문대학〉

○ 사업추진체계

- 특정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강점분야를 특성화하는 체제로 개선
- NCS에 기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
- 특성화 전문대학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육성하고 지역산업·사회와 연계한 특성화 추진
-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특성화계열을 중심으로 학과 통·폐합을 이루고 정원 감축 등을 재정지원과 연동하여 자율적·선제적 구조개혁

○ 특성화 전문대학은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며, 2014년 사업비는 총 2,147억 원으로 책정

- 단일산업 분야 특성화(I 유형), 복합산업분야 특성화(II 유형), 프로그램 특성화(III 유형) 사업으로 구성
-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산업분야에 따라 2014년도 70개교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84개교를 선정·지원

표 2. 특성화 전문대학 유형

연도	단일산업 분야 특성화(I)			복합산업 분야 특성화(II)			프로그램 특성화(III)			계
	수도권	7	19교 내외	수도권	14	43교 내외	전국	8	8교 내외	
2014	지방	12		지방	29					70교
2017 (완성)	수도권	9	27교 내외	수도권	15	47교 내외	전국	10	10교 내외	84교
	지방	18		지방	32					

주: 2013년 현재 139개교중 수도권 44개 대학(31.7%), 지방 95개 대학(68.3%)

- 2014년 특성화 전문대학(유형 I~III) 사업비는 2,147억 원으로 특성화 규모, 재학생 규모, 자율적 입학정원 감축 등 구조 개혁의 정도,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결정

표 3. 특성화 전문대학 유형별 예산

구분	단일산업 분야 특성화(Ⅰ)	복합산업 분야 특성화(Ⅱ)	프로그램 특성화(Ⅲ)	계
예산	640억 원 내외	1,447억 원 내외	60억 원 내외	2,147억 원

- 현재의 대학 여건(50점)과 향후 계획(50점)을 정량·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 현재 여건(50점) = 기본 역량(35점) + 특성화 역량평가(15점)
  - 향후 계획(50점) = 특성화 계획(35점) + 특성화분야 사업계획(15점)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 추진체계
  - 일부 전문대학을 성인중심 일자리 맞춤형 평생직업 교육체제로 개편
  - 모듈식 교육과정을 위해 현장중심의 교수진 강화
  - 고용노동부 정책과 연계·협업하여 지역산업계의 교육·훈련 수요자 및 취업처 발굴과 교육훈련비 지원 등 연계체제 구축 강화
- 2014년 총 사업비는 400억 원으로 1교당 평균 50억 원 내외가 지원되며, 평생직업교육대학은 2014년도 8개교, 2015년도 추가 8개교 등 총 16개교를 선정·지원 예정
  - 대학 규모와 구조개혁 실적,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결정

〈세계로 프로젝트〉

- 2014년 15개 사업단(대학), 2015년 추가 5개 사업단 총 20개 사업단에 대하여 5년 간 총 3,000명 이상 지원 예정
- 사업단(대학)은 해외 진출 한국산업체(외국 산업체 포함)와의 협약 체결 및 교육 참여 대상자 명단을 제출
  - 국고 지원금 관리 및 책무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 지원 금액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대응투자

- 전문대 학생의 임금 등 근로조건 향상과 해외취업 확대를 위해 1년 이상 해외지사 파견 조건으로 국내 본사에 취업할 경우도 교육 대상에 포함

□ **교육부, 2014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2014.1.17.)**

- 2014년도 사업 예산은 4년제 대학의 경우 2,388억 원으로 총 57개교, 전문대학의 경우 195억 원으로 총 30개교를 지원
  - 지원 규모: 대학 2,388억 원(57교×42억 원), 전문대 195억 원(30교×6.2억 원)
  - 지원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2호 ‘대학, 산업대학’, 동법 제2조 4호 ‘전문대학’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5호 ‘기능대학’
- 2단계 사업(‘14년~’16년)은 1단계 사업을 수행해 온 기존 LINC사업단(4년제 대학 51교, 전문대학 29교) 중에서 사업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탈락되고, 신규 대학을 선정하여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 모델을 발굴·확산할 계획
  -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과정과 창업교육 내실화, 창의인재와 기술·특허·아이디어 등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창의적 자산의 활용을 적극 추진
  - ‘산학협력단 기능 강화 방안’(‘13년 10월)과 ‘산학협력 활성화 10대 중점 추진 과제’(‘13년 12월) 등 주요 정책 내용을 2단계 사업에 반영하여 중점 추진할 예정
- 단계평가는 LINC 사업 단계별 중점 목표(1단계: 기반 조성 및 내실화, 2단계: 성과 창출 및 확산)를 고려하여, 1단계(‘12년~’13년) 사업성과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와 2단계(‘14년~’16년) 사업 계획에 대한 정성평가, 수요자(학생, 산업체)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
  - 단계평가 결과, 우수 사업단(상위 60%: 4년제 대학 31교, 전문대 18교)은 2

단계 사업에 계속 참여하게 되나, '미흡'으로 평가받은 사업단은 강제탈락하고 '보통사업단'은 신규 '예비사업단'과의 비교평가를 거쳐 재진입 여부를 결정

- 신규 선정평가는 2단계 사업에 신규로 신청한 사업단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학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산학협력 실적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와 2단계 사업계획에 대한 정성평가, 산업체 만족도 조사를 종합하여 평가
  - 선정평가 결과가 우수한 상위 사업단이 우선 선정되며, 차상위 사업단은 '예비사업단'으로 판정

표 4. 4년제 대학 단계·신규·비교평가 체계

구분 (사업 유형)	1단계 사업단 (수)	단계평가			신규 선정평가			2단계 사업단 (수)	
		상위 60% (계속참여)	하위 ① (보통이하)	최하위② (강제탈락)	비교평가 (14개교 확정)		진입선정 (최상위)		
					보통 ①-② (탈락유보)	예비 (차상위)			
기술혁신형 (전국)	14	8	6	1	5	5	2	15	
현장 밀착형	수도권	5	3	2	1	1	1	2	6
	충청권	8	5	3	1	2	2	2	9
	호남제주권	8	5	3	1	2	2	2	9
	대경강원권	8	5	3	1	2	2	2	9
	동남권	8	5	3	1	2	2	2	9
합 계	51개교	31개교	20개교	-6개교	14개교	14개교	12개교	57개교	

표 5. 전문대학 단계·신규·비교평가 체계

구분 (사업 유형)	1단계 사업단 (수)	단계평가			신규 선정평가			2단계 사업단 (수)	
		상위 60% (계속참여)	하위㉓ (보통이하)	최하위㉔ (강제탈락)	비교평가 (8개교 확정)		진입선정 (최상위)		
					보통 ㉕-㉖ (탈락유보)	예비 (차상위)			
산학협력 선도형	10	6	4	1	3	3	1	10	
현장실습 집중형	공학계	13	8	5	1	4	4	2	14
	비공학계	6	4	2	1	1	1	1	6
합 계	29개교	18개교	11개교	-3개교	8개교	8개교	4개교	30개교	

□ 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 발표(2014.2.6.)

- 정책목표: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의 체질개선과 특성화 기반 조성
  - 추진전략: 개별 대학이 지역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추진
  - 특성화 분야 지원: 지역 특성, 대학별 강점분야 중심의 특성화, 학부교육 내 실화
  - 구조개혁 연계: 구조개혁 계획 연계,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체질개선
  - 지역 산업체 및 범부처 사업 연계: 지역 산업체 연계, 범부처 사업 연계를 통한 효과성 제고
- 지원 대상: 비수도권 소재 4년제 국·공·사립대학
  -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08년 교과부 고시) 및 편제 미완성 대학('14년 4월)도 가능
  -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지정기간 동안 사업비 동액을 해당 학교에서 부담해야함. 또, 고등교육기관 인증평가 결과 유예 대학 역시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비 동액을 해당 학교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이 있음.

- 제외 대상: 특별법에 의한 4개 과학기술원(대),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대학원대학 및 각종 학교 및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및 평가결과 불인정 대학

○ 사업 유형

- 1유형(대학 자율): 모든 학문분야에 대해 자율적으로 특성화할 분야를 지원하고, 사업단은 대·중·소형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이 가능하며, 대학 규모별 사업단 수·총지원액 범위 내에서 선택
- 2유형(국가 지원): 학문간 균형 발전과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지원하며, 대학 규모별로 2~4개 사업단을 지원 대상별 제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
- 3유형(지역 전략): 지역사회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대학이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분야를 지원하며, 대학별로 1개 사업단만 신청 가능함. 또, 타 대학간 네트워크(주관대학-협력대학)로 신청 가능(대학원 연계 참여 허용)

○ 향후 5년간('14년~'18년) 총 1조원 이상이 지방대학에 투자되며, 이를 통해 지방대학이 지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사업비: 2,031억 원(사업비 2,010억 원 + 사업관리비 21억 원)

표 6. 지방대학교 특성화 사업 예산

		(단위: 억 원)	
기존 사업 구조	2013년	개편 사업 구조	2014년
지방대학경쟁력기반확충 (지방대학 교육역량강화)	1,437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2,031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1,910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100
		사업관리비	21

□ **교육부, 「2014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발표(2014.1.15.)**

- 학술·연구지원사업은 새로운 지식 창출과 창의적 연구자 양성을 통해 창조 경제 실현의 원천을 창출하고, ‘인문정신문화 진흥’, ‘지역대학 육성’ 등 국정 과제 실현과 ‘공과대학 혁신’과 같은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과제를 선정
- 2014년 학술·연구에 총 6,039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인문사회 기초연구에 2,237억 원, 과학기술 기초연구에 3,314억 원, 성과확산 및 대중화 등에 206억 원이 지원
  - 인문학 대중화 사업 규모가 29억 원(13년)에서 60억 원(14년)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학제간 융합연구도 34억 원(13년)에서 50억 원(14년)으로 증가
- 과제1. 인문학 3.0실현을 위한 인문학 지원 강화
  - 교육-연구지원-성과확산·활용 및 대중화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인문학 진흥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
  - 예술·체육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예술·체육 전담지원 사업(가칭 AsK : Arts & sports Korea)을 인문사회대학 중점연구소 사업내에서 시범 추진
- 과제2. 지역대학 육성 지원
  - 이공분야와 인문사회 중점연구소 신규과제를 모두 지역대학에 집중 지원하고, 리서치펠로우 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 시 지역대학 연구자를 우대할 계획
  - 과제 선정과정에서 동점자 발생 시 지역대학 연구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과제3. 공과대학 혁신 지원
  - 공학분야 및 공과대학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서 특히, 기술이전, 지역산업과 연계 정도 등을 과제 선정평가와 중간·결과 평가 등에 반영

- 이공분야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신규과제 평가시 공과대학의 경우는 향후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계획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일 예정
- 특히,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 성과 인정비율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

○ 기타 주요 과제

- 개인 기초연구 신규과제 수를 안정화 하기위해 2014년에는 신규과제 지원 기간을 한시적으로 2.5년(종전 3년)으로 조정
- 실패위험이 있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 지원을 위해 이공분야에서는 ‘한국형 SGER’(Small Grant for Exploratory Research)을 시범적으로 실시(개인 기초연구 50과제 내외)하며, 인문사회분야는 개인연구 신규과제에 창의·소외 및 융합연구 분야를 별도로 배정하여 지원

□ **교육부, 국가근로장학금 확대(2014.1.27.)**

- 국가근로장학금을 2013년보다 512억 원(35.8%) 증액된 1,943억 원 규모로 지원
  - 지원 규모 확대와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통해 2013년에 비해 약 3만명이 늘어난 10만명이 근로장학금 혜택을 받을 예정
- 2014년에는 지난해까지 4년간 동결되었던 장학금 시급 단가를 인상할 계획
  - 교내근로 6천 원 → 8천 원, 교외근로 8천 원 → 9천 5백 원으로 각각 인상
- 관계부처·기업 간 협업을 통해 교외근로를 활성화함으로써 근로장학생에게 전공과 연계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근로장학금 지원을 대폭 강화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전공연계형 일자리 등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공익성을 갖춘 일자리를 집중 발굴
  - 2017년까지 분야별로 500개의 「우수근로장학기관」을 선정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양질의 직업체험 기회를 확충해 나갈 것  
 - 근로기관이 근로장학생에게 국가근로장학금 외에 추가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

○ 2014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접수(1월 27일~2월 7일)를 시작으로 11월까지 6차에 걸쳐 국가근로장학생을 선발

□ **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2014.2.18.)**

○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은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 건물을 임차하거나 건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교사(校舍)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면적 이상의 교지(校地)를 확보할 필요 없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함.

- 현행 규정에 따라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요하는 경우 기준면적 이상 교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음.

○ 또한, 대학이 산업단지 안으로 대학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교사 및 교지를 갖추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을 개정

○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학과 산업체 간의 교류·협력이 보다 활발하고, 교육 R&D고용이 연계되는 새로운 융합형 산학협력 모델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교육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50억 원 확정(2014.1.23.)**

○ 추진 목적: 인생 100세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정비를 통해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발전과 학습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학습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

- 2014년에는 은퇴자와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
-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본격 지원함으로써 주민이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행복학습센터: 주민의 평생교육 요구를 수렴하여 지역사회 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 2014년 60개 시·군·구에 180개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계획
- 10개 시·군·구를 평생학습도시로 신규로 지정하는 등 28개 시·군·구를 공모하여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계획
  - 평생학습도시 확대 : 90개('12년) → 118개('13년) → 128개('14년) → 150개('17년)

표 7. 201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내역

세부 사업	내 용	예 산(백만 원)
시·도간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 12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신규 2개 시·도 포함)	880
평생학습도시 조성	• 28개 시·군·구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지원 10개 -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10개 - 비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평생교육사업 운영 8개 •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플랫폼 협력	1,870
행복학습센터 운영	• 60개 시·군·구 - 거점센터 및 180개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1,896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	• 3개 시·도 평생교육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정보화 지원	225
사업 성과관리	• 사업 대상 공모, 컨설팅, 성과관리 등	130

## II. 직업교육 통계

### ◆ 2014년 교육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 □ 총 지출이 2008년 39.1조 원에서 2012년 49.3조 원으로 연평균 5.9% 증가

- 교육 분야는 2008년 35.8조 원에서 2012년 45.2조 원으로 연평균 6.0% 증가
  - 과학기술 분야는 2008년 0.1조 원에서 2012년 0.4조 원으로 연평균 27%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2008년 3.2조 원에서 2012년 3.7조 원으로 연평균 3.7% 증가
- 교육분야에서는 유·초·중등교육이 2008년 31.0조 원에서 2012년 38.6조 원으로 연평균 5.6% 증가하였고, 고등교육도 2008년 4.2조 원에서 2012년 6.0조 원으로 연평균 9.1%로 빠르게 증가

표 8. 분야별 재정투자 추이

(단위: 억 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계	391,416	401,883	417,798	447,366	492,861	5.9
○ 예산	358,431	367,787	379,856	409,816	453,795	6.1
○ 기금	32,985	34,096	37,942	37,550	39,067	4.3
【교육 분야】	358,327	367,187	379,585	409,064	452,413	6.0
▪ 유아 및 초·중등교육	310,328	311,123	325,467	354,847	385,549	5.6
▪ 고등교육	42,498	50,125	48,102	47,019	60,290	9.1
▪ 평생·직업교육	4,124	4,977	5,055	6,238	5,649	8.2
▪ 교육일반	1,377	962	961	960	925	△9.5
【과학기술】	1,490	2,504	3,297	3,578	3,876	27.0
▪ 기술개발	1,490	2,239	2,986	3,175	3,343	22.4
▪ 과학기술연구지원	-	265	311	403	534	26.3
【사회복지】	31,599	32,192	34,916	34,724	36,572	3.7
▪ 공적연금	31,599	32,192	34,916	34,724	36,572	3.7

자료: 교육부(2014),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중기 재정투자 계획은 총 지출 규모가 2013년 53.8조 원에서 2017년 66.1조 원으로 연평균 5.3% 증가

- 교육 분야는 2013년 49.6조 원에서 2017년 61.9조 원으로 연평균 5.7% 증가
- 평생·직업교육은 2013년 0.7조 원에서 2017년 0.4조 원으로 연평균 15.6% 감소

표 9. 중기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 원,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계	538,264	542,481	570,198	619,758	660,524	5.3
○ 예산	497,942	501,934	527,312	577,551	617,123	5.5
○ 기금	40,322	40,547	42,886	42,207	43,401	1.9
【교육분야】	496,295	504,277	529,571	579,201	618,588	5.7
▪ 유아 및 초·중등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2,286 (410,619)	411,370 (408,681)	433,516 (432,097)	478,161 (476,938)	512,342 (511,155)	5.6 (5.6)
▪ 고등교육	75,647	86,520	90,561	95,462	101,551	7.6
▪ 평생·직업교육	7,433	5,384	4,458	4,491	3,552	△15.6
▪ 교육일반	929	1,003	1,036	1,087	1,143	5.3
【과학기술분야】	4,082	-	-	-	-	순감
【사회복지분야】	37,887	38,204	40,626	40,558	41,935	2.6

주: 1) 과학기술분야('13년 0.4조 원)는 정부개편으로 교육분야로 이동하여 순감하되, 2014년부터는 교육분야에 포함하여 투자

2) 총 지출 기준(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제외)

3) 제 1회 추가결정 예산포함('13년)

자료: 교육부(2014).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2014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217억 원(0.8%) 증액된 54조 2,481억 원

- 교육분야는 50조 4,2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82억 원(1.6%)이 증액
- 고등교육부문은 8조 6,5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874억 원(14.4%) 증액
- 반면, 평생·직업교육부문은 5,384억 원으로 전년대비 2,050억 원 (△27.6%) 감액

표 10. 2014년 분야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구분	2013년			2014년 예산(B)	증△감 (A-B)	
	본예산	추경	계(A)		(A-B)	%
▣ 예산+기금	53,706,250	120,156	53,826,406	54,248,094	421,688	0.8
(교부금 제외)	12,644,331	120,156	12,764,487	13,380,017	615,530	4.8
▣ 예산	49,674,014	120,156	49,794,170	50,193,395	399,225	0.8
▣ 기금	4,032,236	-	4,032,236	4,054,699	22,463	0.6
■ 교육분야	49,519,329	110,156	49,629,485	50,427,706	798,221	1.6
(교부금 제외)	8,457,410	110,156	8,567,566	9,559,629	992,063	11.6
▪ 유아 및 초·중등교육	41,228,579	-	41,228,579	41,137,040	△91,539	△0.2
▪ 고등교육	7,497,609	67,056	7,564,665	8,652,036	1,087,371	14.4
▪ 평생·직업교육	700,237	43,100	743,337	538,362	△204,975	△27.6
▪ 교육일반	92,904	-	92,904	100,268	7,364	7.9
■ 과학기술분야	398,236	10,000	408,236	-	△408,236	순감
▪ 기술개발	341,998	10,000	351,998	-	△351,998	순감
▪ 과학기술연구지원	56,238	-	56,238	-	△56,238	순감
■ 사회복지분야	3,788,685	-	3,788,685	3,820,388	31,703	0.8

자료: 교육부(2014),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2011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한국고용정보원)

□ 대졸 취업자 중 업무와 전공이 일치하는 경우는 48.2%, 불일치하는 경우는 28.9%임.

- 성별로는 여성의 업무와 전공 일치자 비율이 50.4%인 반면, 남성은 46.1%임.
- 학교 유형별 업무와 전공 일치자 비율은 교육대학(88.2%)이 가장 높고, 2~3년제 전문대학이 45.8%로 가장 낮음.
- 전공계열별로는 의약계열과 교육계열에서 업무와 전공이 일치하는 대졸 취업자 비율이 각각 74.8%, 76.6%로 가장 높음.
  - 불일치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계열은 인문계열(47.5%)임.

표 11. 현재 일자리 업무내용-전공 일치도

(단위: %)

구 분		전혀 맞지 않음	잘 맞지 않음	보통	잘 맞음	매우 잘 맞음
성	남성	16.7	13.8	23.4	29.4	16.7
	여성	15.1	12.1	22.4	30.6	19.8
학교 유형	2~3년제	19.1	12.8	22.3	28.4	17.4
	4년제	14.1	13.3	23.7	31.0	18.0
	교육대	1.3	1.9	8.7	33.0	55.2
전공 계열	인문	27.3	20.2	22.2	20.9	9.4
	사회	17.1	15.4	27.5	29.7	10.3
	교육	6.9	3.7	12.76	33.9	42.7
	공학	14.1	15.0	24.3	31.1	15.6
	자연	18.6	12.4	22.2	27.8	19.09
	의약	4.4	4.2	16.6	35.5	39.3
	예체능	19.3	10.1	20.6	30.8	19.2
전 체		15.9	13.0	22.9	30.0	18.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4.2.28).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보도자료.

□ 졸업한 대학을 선택한 이유로 대졸 취업자 41.1%가 ‘원하는 전공 혹은 업무 관련 분야를 공부할 수 있어서’를 꼽았음.

○ ‘(수능 및 학교)성적에 맞춰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31.5%에 달함.

- 학교유형별로는 교육대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17.5%로 2~3년제(9.8%)나 4년제(8.3%)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음.
-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과 공학계열에서 ‘성적에 맞춰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0.2%, 36.3%로 다른 전공계열보다 높고, 의약계열은 ‘졸업 후 취업이 잘될 것 같아서’가 14.4%로 다른 전공계열보다 높게 나옴.

표 12. 졸업대학을 선택한 이유

(단위: %)

구분	성적에 맞춰서 (수능 및 학교)	전공분야 고려해서	부모님, 선생님의 권유로	통학 거리가 가까워서	학교의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서	졸업 후 취업이 잘될 것 같아서	학비가 저렴해서	
성	남성	33.5	38.3	8.8	4.1	2.7	5.2	3.3
	여성	29.5	43.7	9.1	3.9	2.1	5.4	2.6
학교 유형	2~3년제	20.7	44.5	9.8	5.8	1.1	8.9	2.2
	4년제	38.8	38.7	8.3	2.9	3.2	2.9	3.4
	교육대	14.3	52.2	17.5	0.8	1.0	11.9	0.3
전공 계열	인문	40.2	37.2	7.8	3.3	2.8	2.1	3.4
	사회	33.2	38.7	8.5	5.1	2.0	4.3	2.8
	교육	20.2	54.5	10.8	1.7	1.4	6.9	1.7
	공학	36.3	33.1	9.4	4.6	2.8	6.6	3.7
	자연	35.5	40.5	7.9	3.6	3.1	2.7	4.1
	의약	22.5	40.0	14.2	2.3	1.6	14.4	1.6
	예체능	21.2	57.7	6.8	3.2	2.4	3.0	2.0
전체	31.5	41.1	9.0	4.0	2.4	5.3	2.9	

주: 2% 미만 문항('친구나 선배의 권유로', '통학거리가 가까워서', '야간수업이 가능해서', '기타') 삭제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4.2.28),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보도자료.

□ 대졸 취업자의 주된 전공 선택 이유는 ‘학문적 흥미 및 적성을 고려’ (49.1%)로 나타남.

- ‘직업 및 취업전망이 밝아서’의 응답 비율은 26.9%, ‘(수능 및 학교)성적에 맞춰서’는 12.1%임.
-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은 ‘학문적 흥미 및 적성을 고려해서’의 비율이 각각 62.3%와 75.6%로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의약계열은 ‘직업 및 취업전망이 밝아서’가 54.9%로 다른 전공계열보다 높게 나타남.

표 13. 전공 선택 이유

(단위: %)

구 분		직업 및 취업 전망이 밝아서	성적에 맞춰서	흥미 및 적성을 고려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친구나 선배의 권유로	사회적 인식이나 명성때문에	기타
성	남성	28,3	12,9	45,9	7,7	2,2	1,4	1,6
	여성	25,5	11,3	52,2	7,7	1,4	0,7	1,2
학교 유형	2~3년제	31,7	9,1	45,8	7,7	2,3	1,2	2,2
	4년제	23,7	14,2	51,3	7,7	1,4	0,9	0,8
	교육대	30,5	6,3	51,4	8,0	2,2	0,6	0,9
전공 계열	인문	13,1	15,1	62,3	6,6	1,4	0,6	0,8
	사회	28,2	12,7	44,9	8,3	2,4	2,0	1,5
	교육	22,9	8,9	57,2	8,4	1,0	0,9	0,8
	공학	33,6	14,3	39,9	8,2	1,9	0,5	1,6
	자연	20,8	15,6	52,2	7,5	1,7	0,6	1,7
	의약	54,9	7,1	23,3	11,3	1,9	0,6	0,8
	예체능	10,9	7,0	75,6	3,4	0,9	0,8	1,4
전 체		26,9	12,1	49,1	7,7	1,8	1,0	1,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4.2.28).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보도자료.

□ 대학교육 만족도 중 ‘진로관련 상담 및 지원제도’(3.03점)가 가장 낮음.

- 학교유형별로는 2~3년제와 4년제에서 ‘전공 교수진의 능력 및 열의’가 각각 3.37점, 3.47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대에서는 ‘전공 커리큘럼 및 내용’의 만족도(3.38점)가 가장 높음.
  - 교육대(3.38점)를 제외하고 2~3년제와 4년제에서는 ‘진로관련 상담 및 지원제도’가 각각 3.03점으로 가장 낮음.
-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모든 전공계열에서 ‘진로관련 상담 및 지원제도’항목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예체능계열은 ‘진로관련 상담 및 지원제도’에 대해 가장 낮은 만족도(2.85점)를 보임.

표 14. 대학교육 만족도

(단위: 점/5점)

구분		교육 지원 시설	학생 복지 시설	학생 지원 제도	진로관련 상담 및 지원 제도	전공 커리큘럼 및 내용	전공 교수진의 능력 및 열의	수업의 방식 및 질	전반적인 만족도
성	남성	3.24	3.12	3.20	3.06	3.22	3.44	3.31	3.28
	여성	3.20	3.11	3.18	3.01	3.24	3.42	3.32	3.27
학교 유형	2~3년제	3.15	3.04	3.18	3.03	3.16	3.37	3.25	3.18
	4년제	3.27	3.17	3.20	3.03	3.28	3.47	3.36	3.33
	교육대	3.37	3.09	3.26	3.11	3.38	3.30	3.22	3.41
전공 계열	인문	3.22	3.13	3.23	3.00	3.25	3.47	3.37	3.27
	사회	3.24	3.15	3.23	3.07	3.22	3.41	3.30	3.28
	교육	3.31	3.19	3.20	3.13	3.39	3.53	3.43	3.41
	공학	3.24	3.13	3.22	3.08	3.22	3.45	3.31	3.28
	자연	3.28	3.18	3.21	3.06	3.25	3.46	3.36	3.34
	의약	3.18	3.02	3.08	3.00	3.30	3.45	3.35	3.22
	예체능	3.09	3.00	3.06	2.85	3.13	3.30	3.20	3.16
전체		3.22	3.12	3.19	3.03	3.23	3.43	3.32	3.2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4.2.28),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보도자료.

□ **대졸자의 52.7%가 졸업 전에 취업목표를 설정해 본 경험이 있으며, 47.3%는 취업목표를 설정해 본 경험이 없음.**

- 학교유형별로는 2~3년제의 취업목표 설정비율이 45.8%로 가장 낮음.
- 전공계열별로는 교육계열과 의약계열이 각각 74.1%, 66.3%로 다른 전공계열보다 졸업 전 취업목표 설정 비율이 높음.

표 15. 취업목표 설정 여부

(단위: %)

구 분		설정	비설정	전체
성	남성	50,6	49,4	100,0
	여성	54,7	45,3	100,0
학교 유형	2~3년제	45,8	54,2	100,0
	4년제	56,5	43,5	100,0
	교육대	87,8	12,2	100,0
전공 계열	인문	48,2	51,8	100,0
	사회	51,9	48,1	100,0
	교육	74,1	25,9	100,0
	공학	47,6	52,4	100,0
	자연	51,0	49,0	100,0
	의약	66,3	33,7	100,0
	예체능	48,7	51,3	100,0
전 체		52,7	47,3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4.2.28).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보도자료.

〈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개요 〉

- 조사대상
  - 2010년 8월과 2011년 2월에 전문대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약 48만 명 중 18,299표본을 2012년 9~11월 약 3개월간 조사 실시
- 조사내용: 대졸자의 초기 노동시장의 진입과 교육-노동시장 연계 등에 관한 사항
  - 현 일자리, 구직활동, 일자리 경험, 취업준비, 대학생활 등
- 조사 기준기간: 2012년 8월 25일~8월 31일 기준
- 조사방법: 전문면접원이 직접 조사대상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대면면접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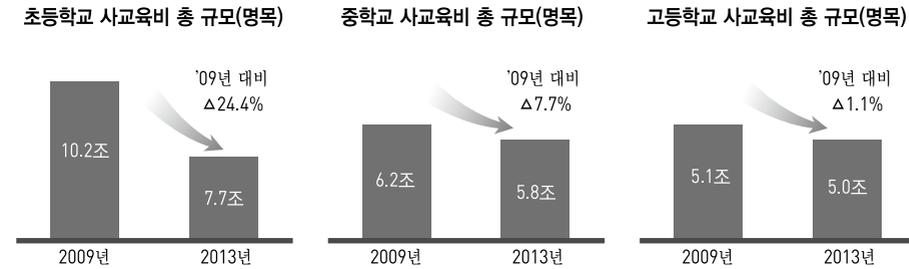
◆ 2013년 사교육비 · 의식조사 결과

□ 2013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12년 19조원 대비 4,435억 원(△2.3%) 줄어든 약 18조 6천억 원으로 4년 연속 감소함.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조 7,375억 원(△0.2%), 중학교 5조 7,831억 원

(△5.4%), 고등학교 5조 754억 원(△1.8%)으로 모두 감소

그림 1. 학교급별 사교육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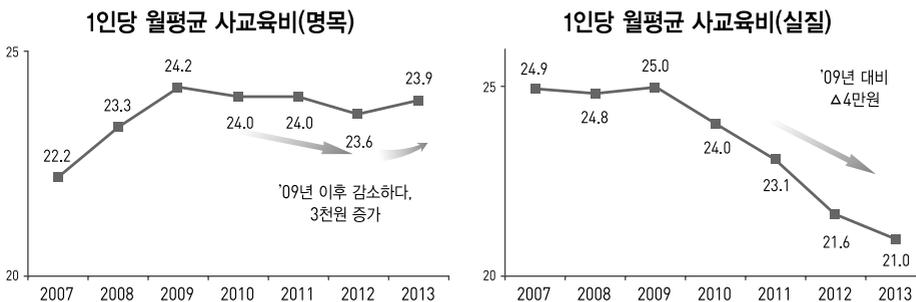


자료: 교육부(2014.2.28.), 2013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 보도자료.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3천원(1.3%) 증가한 23만 9천 원

- 사교육 관련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1인당 실질 사교육비는 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천 원(△2.8%), 2009년 대비 4만 원(△16.0%) 감소
-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23.2만 원, 중학교 26.7만 원, 고등학교 22.3만 원으로, 초등학교는 전년 대비 5.9% 증가하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3.3%, 0.4% 감소하였음.

그림 2.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자료: 교육부(2014.2.28.), 2013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 보도자료.

그림 3. 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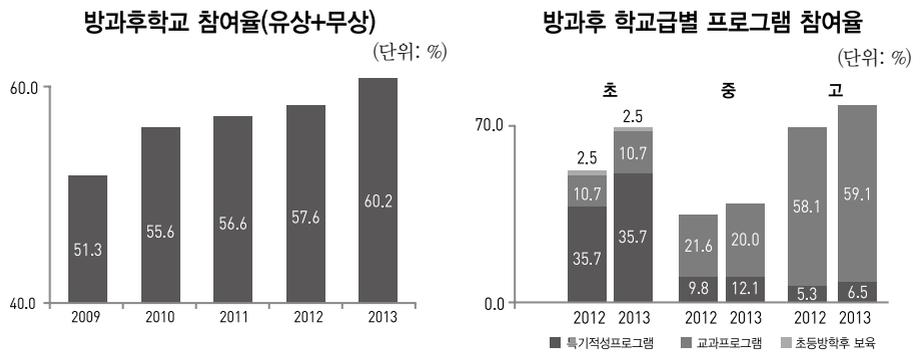


자료: 교육부(2014.2.28.), 2013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 보도자료.

□ 방과후학교 참여율(유상+무상)은 2013년 60.2%로 전년 대비 2.6%p 증가 하였으며, 2009년 대비 8.9%p 증가

- 특기적성 프로그램 참여율(유상)은 모든 학교급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초등학교(35.7%→42.4%, 6.7%p), 중학교(9.8%→12.1%, 2.3%p), 고등학교(5.3%→6.5%, 1.2%p) 순으로 증가

그림 4. 방과후학교 참여율



자료: 교육부(2014.2.28.), 2013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 보도자료.

◆ 2013년 학교진로교육실태 조사결과

□ 학부모가 자녀의 직업 선택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흥미와 적성’(66.3%)임.

○ 학교급별은 초등학생의 73.1%, 중학교 64.0%, 고등학교 58.5%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흥미와 적성’ 비율이 감소

표 16. 자녀 직업의 선택 기준

(단위: %)

구분	높은 수입	안정적인 곳	흥미와 적성	적은 스트레스	타인의 인정	봉사 및 기여	충분한 여가시간	발전 가능성이 큰 곳	창의성, 자율성 발휘	쾌적한 업무 환경	기타/무응답
초등	7.1	4.9	73.1	2.0	2.1	1.6	0.2	5.5	2.2	1.1	0.2
중등	12.4	8.5	64.0	2.6	2.5	1.3	0.2	4.4	1.9	1.8	0.4
고등	14.3	12.4	58.5	3.1	2.8	1.1	0.3	3.3	1.5	2.4	0.4
전체	10.7	8.0	66.3	2.5	2.4	1.4	0.2	4.6	1.9	1.7	0.3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2013 학교진로교육실태조사.

□ 초등학생 학부모의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는 ‘진학정보’(26.5%)가 가장 많고, 중·고등학생 학부모는 ‘진학 관련 진로상담’(23.3%, 25.7%)이 가장 많음.

○ 진로심리검사는 초등학생 학부모 18.6%, 중·고등학생 학부모는 각각 23.1%, 15.5%로 나타남.

표 17. 학부모의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초등학생)

(단위: %)

구분	직업 정보	진학 정보 (중/고등학교, 대학 등)	진로 동아리 활동	진로 심리검사 (적성/ 흥미탐색)	진로 상담	직업인이나 유명한 사람의 특강(강의)	진로 관련 견학	진로 관련 현장체험	진로활동 수업	기타/무응답
비율	12.9	26.5	6.8	18.6	5.6	6.9	8.1	11.1	3.1	0.6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2013 학교진로교육실태조사.

표 18. 학부모의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중·고등학생)

(단위: %)

구분	진로 동아리	진로 심리검사 (흥미, 적성검사 등)	진로 상담 (진학 관련)	진로상담 (직업 관련)	진로 과목 (진로와 직업) 수업	진학 관련 특강	진학 관련 견학 (대학 견학 등)	직업 관련 특강	직업 관련 현장견학	직업 현장 체험	기타/ 무응답
중등	8.9	23.1	23.3	8.9	5.4	4.6	8.9	2.6	6.1	7.5	0.6
고등	7.9	15.5	25.7	11.5	4.6	5.0	8.6	3.2	7.4	10.2	0.4
전체	8.5	20.1	24.2	9.9	5.1	4.8	8.8	2.9	6.6	8.6	0.5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2013 학교진로교육실태조사.

□ 학생의 직업 선택 기준 중 초등학생 60.8%, 중학생 58.5%, 고등학생 61.4%가 ‘흥미와 적성’을 선택함.

○ ‘높은 수입’의 응답비율도 초등학생 22.0%, 중학생 24.9%, 고등학생 20.7%로 높게 나타남.

표 19. 직업 선택의 기준

(단위: %)

구분	높은 수입	안정적인 곳	흥미와 적성	적은 스트레스	타인의 인정	봉사 및 기여	충분한 여가시간	발전 가능성이 큰 곳	창의성, 자율성 발휘	쾌적한 업무환경	기타/ 무응답
초등	22.0	3.6	60.8	1.9	2.1	2.2	0.3	4.1	1.5	1.0	0.5
중등	24.9	6.4	58.5	1.8	1.8	1.1	0.4	2.3	1.3	1.1	0.4
고등	20.7	7.8	61.4	1.6	1.9	1.2	0.4	2.2	1.4	1.2	0.3
전체	22.7	5.6	60.2	1.8	1.9	1.6	0.3	3.0	1.4	1.1	0.4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2013 학교진로교육실태조사.

□ 지난 1년간 초·중·고등학교 진로활동 중 초등학생 67.4%, 중학생 71.5%, 고등학생 83.2%가 진로심리검사를 받음.

○ 진로활동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활동은 진로관련 견학·체험 등 현장 방문임.  
 - 향후 계속 참여의사가 가장 높은 진로활동 또한 현장 견학, 체험 등 현장 경험 중심 활동임.

표 20. 지난 1년간 학교진로활동 참여 여부, 만족 여부 및 계속 참여의사

(단위: %)

구분	참여비율			만족 비율			계속 참여 의사		
	초등	중등	고등	초등	중등	고등	초등	중등	고등
진로동아리	39.2	32.8	33.1	73.0	55.0	53.0	86.0	78.4	80.1
진로심리검사 (흥미, 적성검사 등)	67.4	71.5	83.2	72.6	59.9	56.8	85.6	83.1	86.2
진로 상담	46.3	40.3	48.7	69.6	58.7	54.5	83.5	83.2	87.3
진로 특강	48.0	42.8	46.2	69.6	59.1	54.9	82.1	83.0	87.3
진로 관련 견학	42.1	60.8	70.1	75.3	54.5	52.2	89.2	77.9	80.4
진로 관련 현장체험	46.1	35.3	45.8	76.6	56.8	56.5	90.0	80.7	85.7

주: 만족비율은 '만족', '매우 만족'에 응답한 비율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2013 학교진로교육실태조사.

□ **향후 희망 진로활동은 초등학생의 경우 '직업정보'가 17.4%, 중·고등학생은 '직업 현장 체험'이 각각 19.4%, 20.3%로 가장 높게 나옴.**

○ 초등학생은 '진로 동아리 활동'이 17.3%, 중학교는 '직업 관련 진로상담'이 14.9%, 고등학생은 직업 관련 현장 견학이 15.1%로 두 번째로 높음.

표 21. 향후 진로를 위해 학교에서 하고 싶은 활동(초등학생)

(단위: %)

구분	직업 정보	진학 정보	진로 동아리	진로 심리검사	진로 상담	직업인, 유명인 특강	진로 관련 견학	진로 현장체험	진로활동 수업	기타/무응답
비율	17.4	14.8	17.3	8.5	4.5	10.2	6.9	15.4	4.2	0.9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2013 학교진로교육실태조사.

표 22. 향후 진로를 위해 학교에서 하고 싶은 활동(중·고등학생)

(단위: %)

구분	진로 동아리	진로 심리검사	진로상담 (진학 관련)	진로상담 (직업 관련)	진로와 직업수업	진학 관련 특강	진학 관련 견학	직업 관련 특강	직업 관련 현장견학	직업 현장 체험	기타/ 무응답
중등	5.2	11.6	10.9	14.9	4.8	4.6	10.2	4.7	12.0	19.4	1.6
고등	4.1	8.2	10.4	14.5	3.5	4.7	11.9	6.4	15.1	20.3	1.0
전체	4.8	10.2	10.7	14.7	4.2	4.7	10.9	5.4	13.3	19.7	1.4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2013 학교진로교육실태조사. KROVET

(작성: 이은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with you

행복한 일자리, 역량있는 직업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동행합니다